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연중 제15주일

제2154호

2023년 7월 16일(가해)



오늘의 미사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오 13,9).”

▶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 제1독서: 이사야서 55,10-11

▶ 화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제2독서: 로마서 8,18-2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13,1-23

▶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이명노(비오)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honolulukcc.org/>



사목 일정

1) 8월 봉성체 안내

8월 봉성체는 8월 17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7월 16일(일)	오후 4시
7월 23일(일)	오후 4시
7월 30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아 공지 사항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기도 알림 ◆

- 대상: 전신자
- 방법: 개별기도
(33일 봉헌기도책 참조 /성물판매소에서 구입 가능) 또는 가톨릭 성모방송(CMBS) YouTube 채널 33일 봉헌기도 참조
- 기간: 7월 13일 시작 ~ 8월 15일까지
- 봉헌미사: 성모승천 대축일
8월 15일 오후 7:00 (본당)

■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경순 마리아 자매님께서 지난 5월 26일(금) 향년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의 지향으로 개신교 장례를 할 예정입니다.

연도	7월 16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장례식	7월 17일(월) 10시
	장소: 다운타운 밀리라니 장례식장
하관식	7월 17일(월) 12시 30분
	장소: 밀리라니 메모리얼 파크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7월 16일(일)	“성경 통독: 창세기 1부”
7월 23일(일)	“성경 통독: 창세기 2부”

- 시간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비자 교리 교육 안내

일시 : 8월 13일 9시(첫수업)

장소 : 예비자 교리실

하와이 한인 성당

제 9차 성령 세미나 안내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창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한 이번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초대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성령 세미나가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2일(금)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MYCOMP 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1) 성모회 모임

일시: 7월 16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2) 명도회 모임

일시: 7월 23일(일) 교중 미사 후(12:00)

장소: 사제관 옆 천막

3) 연령회 모임

일시: 7월 16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 2차헌금 안내

Ohana in Christ을 위한 2차헌금:

7/22~23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7월9/10일):\$4,953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2,456	\$1,740	\$757

제대 제작을 위한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임이선 스텔라 자매님, 김보옥 소화데레사 자매님, 송폴 바오로 형제님, 송은자 데레사 자매님, 김민자 아가다 자매님, 안린지 마르첼라 자매님, 백은진 글라라 자매님, 김형식 바오로 형제님, 김현숙 율리아 자매님

알아봅시다

믿음의 순종(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

하느님께서 당신의 행위와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해 밝혀 주신 계시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로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믿음의 순종"(로마 16,26) 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모범으로, 동정 마리아께서는 순종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아브라함- "모든 믿는 이의 조상"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을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히브리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순례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라도 약속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로마 4,3)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진"(로마 4,20)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마 4 11,18)가 되었다.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있으려면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나설 때 가능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느님께 회개하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마리아- "행복하십니까, 믿으신 분" -다음주에 계속 (가톨릭 교회 교리서 참조)



식소영 유자 NMLS# 396147
Cross Country Mortgage
Cel: (808) 798-5100
Email: Shari.shim@myccmortgage.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 뷔티지 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무지개 나라

매일 한 번씩은 소나기를 만났다. 창창한 하늘 밑으로 맑은 빗방울이 긴 줄기의 장대처럼 우두둑 내리꽂히는 게, 어느 호랑이의 장가가는 날인가 싶었다. 하와이를 상징한다는 화사한 풀꽃 무늬 셔츠를 입었던 날도 그랬다. 새 셔츠가 흠뻑 젖어버렸으니, 축축한 촉감마저 고맙고 상쾌했다. 하와이의 소나기에게 만큼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사탕수수, 그 달콤한 이름에 숨은 날카로운 잎사귀로 쓰리고 아프게 베이고 할퀴었을, 옛날 아버지들의 여린 살갓을 깨끗이 씻어 준 고마움 때문이다. 소나기가 그치면 영락없이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시는 홍수로 별하지 않겠다는 노아와의 약속처럼, 육신의 쓰라린 상처가 다 아물지는 못하더라도 영혼만은 다치지 않으리라 다짐하시는 약속이 아닐까.

무지개가 흔해서 하와이가 '레인보우 스테이트'(Rainbow State)라는 별명을 얻었다지만 옛날, 고국을 떠난 가난한 백성에게 해주신 치유의 약속이라 여기고 싶은 것이다.

하와이는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떠난 최초의 공식 이민지였다. 이민자들은 1903년 1월 13일 첫 입국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7천 명이 넘게 섬으로 들어갔다.

미국령 하와이에는 거대한 사탕수수밭을 경작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포르투갈인, 중국인, 일본인, 다양한 국적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가혹한 농장주들에게 항의하기 일쑤였다.

농장주들은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줄 착하고 말 없는 노동자가 필요했다.

구한말 가난한 한반도의 백성이 그들이었다.

개신교 선교사이자 주한 미국 공사 알렌(Allen)이 주선하고, '동서개발회사'의 모집으로 조선인의 하와이 섬 이민이 추진되었다.

개항장 곳곳에 솔깃한 광고가 나붙었다. '출지도 덤지도 않은 날씨에, 집주고 양식 주고 미국 돈으로 월급까지 준다고 했다. 일요일엔 놀고, 자녀들은 값없이 학교도 보낼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태평양을 향해 열린 항구에는 꿈에 부푼 젊은이들의 이민행렬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강원도의 우리 교우들은 열렬한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많은 급여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하와이의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농장 일꾼을 찾기 위해 (어수룩한) 한국인 노동자를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인보다 심한 노동을 순종적으로 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들 수준에는 높은 급여를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사제들은 이러한 허상으로부터 교우들을 떼어 놓으려 했지만, 많은 이들이 몰래 떠났습니다.

(「연례보고서 RAPPORT ANNUEL」 1905년)

- 다음 주 계속

글쓴이: 김성태 요셉 신부(생활성서 발췌)

본당 설립 50주년 목주기도 봉헌

7월 09까지 집계된 목주기도 봉헌은

총 152,357단 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모지매매

모지: Hawaiian Memorial Park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이계옥 카타리나 / 808-222-0326

SAS Ala Moana

사스 공인 딜러
김 퀴리노 / 955-9500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해피약국

처방약, 한국약, 무료배달
김 퀴리노 / 955-9500

모지매매

모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